

로봇 주요 뉴스(02/10)

[국내]

- 큐렉스, '국내 의료로봇 기업 최초' 고관절 임상 성공
- 에스오에스랩, 글로벌 OEM 기업과 논의
- 위로보틱스, 문경동에 '휴머노이드 연구거점' 확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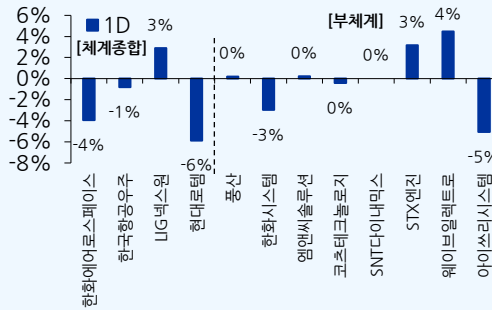
[해외]

- 엔비디아, 4만시간 인간 영상으로 학습한 모델 공개
- 젠스환 "인간처럼 현명한 로봇은 올해 등장"
- 멘티 로보틱스, 괴력의 70kg급 휴머노이드 공개
- 보스턴다이내믹스, 로버트 플레이어 CEO 사임
- 심보텍, 자율 포크리프트 제조사 인수

Zoom-In

[북미 로봇 주문 증가]

- 북미 로봇 주문은 2025년 36,766대를 기록하면서 전년비 6.6% 증가를 달성. 6분기 연속 전년비 (+) 성장을 기록 중. 자동차 외 식품/소비재/전기전자/생명과학 분야가 수요를 이끌고 있음. 현동 로봇 비중도 지속 확대. 2025년에는 20%를 차지. 연간 협동로봇 주문은 7,212대를 기록함.



방산 주요 뉴스(02/10)

[국내]

- 이 대통령,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로 방산협력 논의
- LIG넥스원, 중동에 K-방공망 이식. 대규모 수주 예고
- 한화-KAI, KF-21 탑재 핵심 항공 무장 공동개발 협력
- 군, 4월 제주 해상서 우주발사체 4차 시험발사
- "중무장 육군 축소" 美 전문가, 주한미군 감축 전망
- 루마니아 K9 5대와 K10 2대 생산 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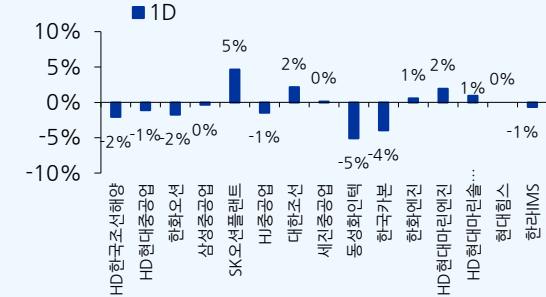
[해외]

- 美, 호르무즈 해협 美 선박에 "이란 가까이 가지 마라"
- 유럽, SAFE 이후 추가 자금 지원 및 대체 가능성 검토

Zoom-In

[LIG넥스원, 중동 수주 예고]

- 언론 인터뷰에서, LIG넥스원 중동 총괄 및 고위 관계자가, 중동 현지에서 현지 생산부터 인제 교육까지 추진하며, 2027년 중동 L-SAM 시리즈 출시하고, 전시회를 기점으로 대형 수주 등 여러 성과 가시화될 것이라 언급. 중동은 LIG넥스원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 자신감을 표명.



조선 주요 뉴스(02/10)

[국내]

- 마스가, 韓서 블록이라도 생산해야 하는데, 美 "안돼"
- 한화오션, 잠수함 수주전 '초호화 로비사단' 구축
- 삼성중 선주 잔금 미지불로 수에즈막스 인도 취소
- 장보고, 내달 캐나다로 출항. 현지서 첫 연합해군훈련
- SK오션플랜트, 미 해군과 함정정비협약 체결

[해외]

- 그리스 센트럴, 중국에 MR2 10척 발주
- 머스크의 대형 컨선 8척, 中 뉴타임즈 조선으로
- 카타르에너지, LNGC 건조 프로젝트 3단계 계획 수립

Zoom-In

[MASGA, 한국에서 블록건조도 안돼!]

- 美 스티븐슨센터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, 한국 내 미국 선박 블록 건조에 대해, '전략적'으로는 타당하지만, '정치적'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확인. 관련 법 개정도 가능성 희박. 미국에서 배를 건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행정부가 인식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.